

질소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농촌지역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원 추정

배광우 · 차장환, 이강근*, 정형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gobe@karico.co.kr

요약문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문화마을 인근의 19개 지하수 관측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질산성질소 농도와 $\delta^{15}\text{N}$ 값, 암모니아성질소 농도와 $\delta^{15}\text{N}$ 값을 정량하였다. 그 결과 질산성질소에 의한 심각한 오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질산성질소내 $\delta^{15}\text{N}$ 이 +9.4~+36.8‰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 계분이나 생활하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오염원이 동시에 작용함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의 ^{15}N 부화지수(ε)은 ~6.697‰로 틸질에 의한 범위를 만족한다. 암모늄의 질산화가 주요한 반응기작일 경우에 나타나는 암모늄 농도 감소에 따른 ^{15}N 의 부화는 관찰할 수 없다.

주제어 : 질산성질소, $\delta^{15}\text{N}$, 틸질작용, 질산화.

1. 서론

가. 현황과 문제점

질소동위원소를 포함한 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를 이용한 지하수 오염 특성 분석기법은 외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종추적자기법(multi-tracer method)을 도입하여 다양한 동위원소에 대한 방대한 자료 축적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오염원 및 오염 특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분석 장비 및 숙련된 인력의 부족, 분석비 과다 등의 이유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5년간 관련 기관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용화에는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나. 이론

질소에는 ^{14}N , ^{15}N 안정동위원소가 존재하며 자연계 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 동위원소의 존재비가 변하게 되며 이를 나타내는 $\delta^{15}\text{N}$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elta^{15}\text{N}(\%) = \frac{R_S - R_R}{R_R} \times 1000$$

여기서 R_S 는 시료중 질산성질소의 $^{15}\text{N}/(^{15}\text{N} + ^{14}\text{N})$, R_R 는 표준물질인 대기 중 N_2 의 $^{15}\text{N}/(^{15}\text{N} + ^{14}\text{N})$ 로 0.3663 atom%로 알려져 있다. 지하수중 질산성질소의 $\delta^{15}\text{N}$ 를 측정하면 그 오염 원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delta^{15}\text{N}$ 값은 오염원이 화학비료인 경우는 ~+3‰, 토양유기물인 경우 +2~+8‰, 축산폐수나 생활하수인 경우는 +10~+2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reitler & Jones,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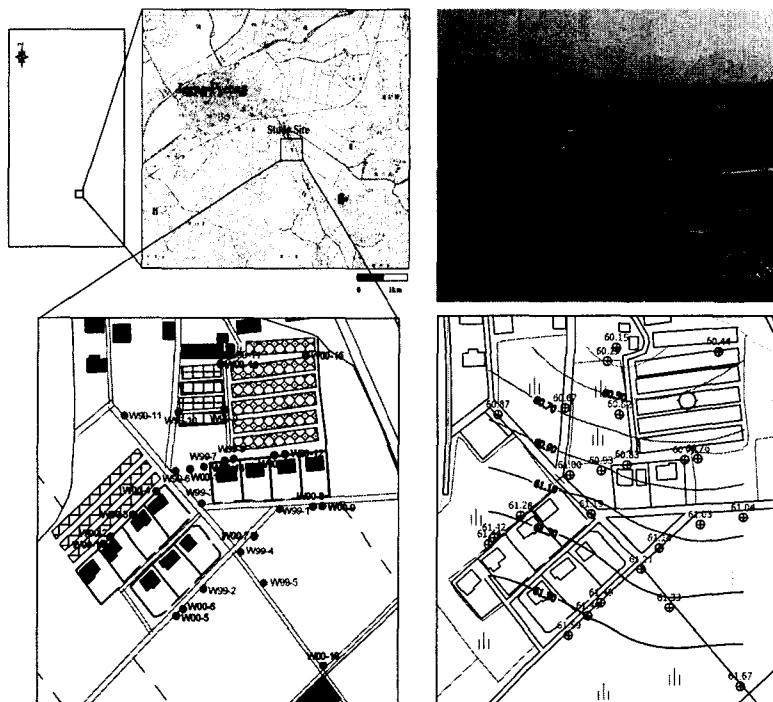
지하수중 질산성질소는 영농과 축산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부분 화학비료, 축산폐수, 축분퇴비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으면서 $\delta^{15}\text{N}$ 값이 +5~+10‰인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오염원이 관여하는 것으로 본다. 즉, 단순히 $\delta^{15}\text{N}$ 값을 기준으로 오염원을 구분할 경우 $\delta^{15}\text{N}$ 값이 낮은 화학비료와 높은 유기오염원에서 유래한 질산성질소가 복합적으로 지하수에 유입되는 상황을 토양 질소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인

위적인 오염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오염원에 의한 희석 효과에 의해 $\delta^{15}\text{N}$ 값이 +5~+10‰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류순호 외, 1999).

2. 본론

가. 연구지역 현황

연구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에 위치한 문화마을과 그 인근 농경지로 동쪽과 서쪽은 구릉을 이루어 비교적 표고가 높고 북동쪽으로는 표고가 낮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지질은 주로 중생대 쥐라기의 반상화강암이 분포하며, 분지는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지역은 과거에 하천이었다가, 1995년에 1~2m가량 복토된 후 문화마을이 조성되었다. 마을을 조성하면서 마을 생활오수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 토양식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관측정 배치도, 및 지하수위 등고선도(2002.2).

나. 지하수 유동계

연구지역의 지하수 유동방향은 삼기천의 유동방향과 유사하게 남남서에서 북북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시험 결과 수리전도도는 3.01~41.48m/day 값을 나타내며, 대략적으로 계산된 수두 구배값 7×10^{-3} 을 이용하면 지하수의 유속이 0.02~0.28m/day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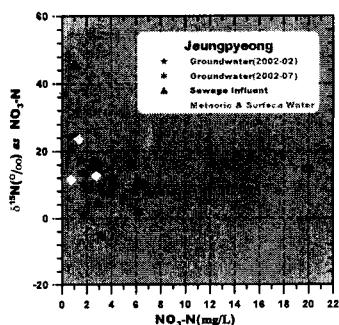
다. 시료채취 및 분석

질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시료는 총 43개 관정중 15개 관정, 강우, 삼기천 하천수 2곳, 생활하수 등 총 19개를 갈수기(2002년 2월)와 풍수기(2002년 7월)에 각각 채취하여 질산성질소 농도 및 질산성질소내의 $\delta^{15}\text{N}$ 값, 암모니아성질소 농도 및 암모니아성질소내의 $\delta^{15}\text{N}$ 값을 모두 정량하였다. 질소동위원소 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농업과학공동기기센타(NICEM)에서 수행하였다.

라. 결과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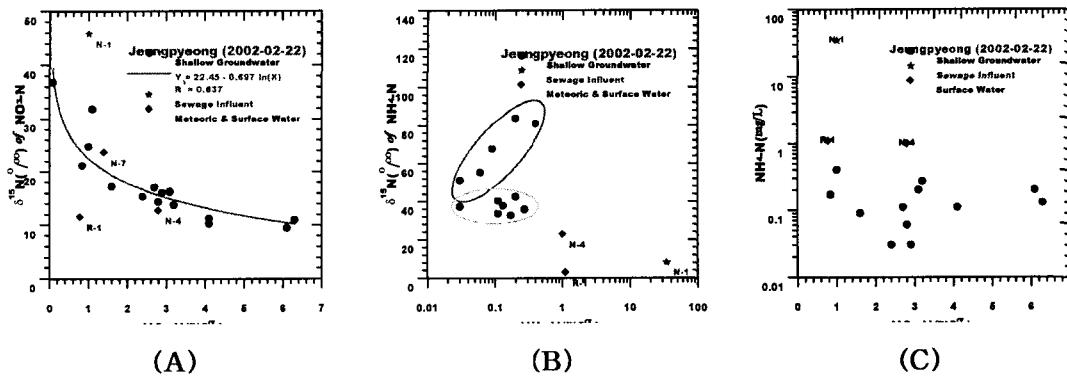
증평 연구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갈수기에 $0.08\text{mg/L} \sim 6.3\text{mg/L}$ 의 범위를 나타내며, 풍수기에 $1.7\text{mg/L} \sim 20.1\text{mg/L}$ 의 범위를 나타낸다. 풍수기에는 먹는물 기준치인 10mg/L 를 초과하는 관측정이 존재하나 1공에 불과하며 다른 대부분의 관측정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갈수기에 비해 질산성질소 농도가 다소 증가한 양상이 뚜렷하다(그림 2).

지하수의 질산성질소내 $\delta^{15}\text{N}$ 값은 갈수기에 $+9.4 \sim +36.8\text{\%}$ 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 질산성질소원은 생활하수에 의한 영향과 토양 질소의 유입 후 탈질에 의한 영향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풍수기의 질산성질소내 $\delta^{15}\text{N}$ 값은 $-5.4 \sim +16.0\text{\%}$ 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는 강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의 영향을 받아 계분, 생활오수, 토양 질소 및 비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증평 연구지역의 갈수기·풍수기 질산성질소 농도와 $\delta^{15}\text{N}$.

-5도 만족한다. 이 수치로 볼 때, 연구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의 $\delta^{15}\text{N}$ 의 부화정도가 높은 것은 탈질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A)에서는 암모늄의 질산화(nitrification)가 주요한 반응기작일 경우에 나타나는 암모늄 농도 감소에 따른 $\delta^{15}\text{N}$ 의 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이는 암모늄 배경치가 매우 낮은 것과 연관이 있으며, 질산성질소가 암모늄의 질산화에 의한 생성보다는 질산성질소 자체의 직접적인 유입이 주요한 공급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C)에서 질산성질소 농도와 암모늄 농도 사이의 correlation이 불명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증평 연구지역 갈수기의 지하수내 $\text{NO}_3\text{-N}$, $\text{NH}_4\text{-N}$ 농도와 $\delta^{15}\text{N}$.

그림 2과 그림 3(A)에서 볼 때, 증평 연구지역 갈수기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풍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며 탈질에 의한 질산성질소내 $\delta^{15}\text{N}$ 의 부화가 두드러진 반면, 풍수기 자료에서는 뚜렷한 탈질 우세 현상을 보여주지는 않으며 강우에 의한 여러 질소 공급원으

로부터의 질산성질소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풍수기에는 다양한 오염원 혹은 질소 공급원에 의한 지하수로의 질산성질소 유입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15}N 정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갈수기로 갈수록 탈질 현상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15}N 의 부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갈수기 자료만을 토대로 질산성질소 공급원을 추정할 경우, 축분 혹은 오폐수만의 영향으로 잘못 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3. 결론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공급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증평 문화마을 주변 지하수에 대한 질산성질소내 질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15개 충적층 관정, 강우, 삼기천 하천수 2곳, 생활하수 등 총 19개를 채취하여 질산성질소 농도 및 질산성질소내의 $\delta^{15}\text{N}$, 암모니아성질소 농도 및 암모니아성질소내의 $\delta^{15}\text{N}$ 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질산성질소의 주요 공급원은 갈수기에 생활하수에 의한 영향과 토양 질소의 유입 후 탈질에 의한 영향이 공존하며 풍수기에 강수의 지하수 함양에 의한 영향으로 계분, 생활오수, 토양 질소 및 비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산성질소의 ^{15}N 부화 요인은 혼합 현상보다는 탈질 현상이 우세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환경동위원소를 활용하는 기법을 수리지질 자료와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축산폐수 배출지역 혹은 대규모 시설농업단지의 오염원 및 오염경로 규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류순호, 최우정, 한광현, 1999, 질소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경기도 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 질소 오염원 규명. *한국토양비료학회지*, 32(1), 42-56.
2. Hübner, H., 1986, Isotope effects of nitrogen in the soil and biosphere. In: P. Fritz & J.C. Fontes(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Isotope Geochemistry*, vol. 2b, The Terrestrial Environment, Elsevier, 361-425.
3. Kreitler, C. W., and D. C. Jones, 1975, Natural soil nitrate: The cause of the nitrate contamination of ground water in Runnels county, Texas. *Ground Water*, 13(1), 53-61.
4. Kreitler, C. W., S. E. Ragone, and B. G. Katz. 1978. N15/N14 Ratios of Ground-Water Nitrate, Long Island, New York. *Ground Water*, Vol. 16, No. 6, pp. 404-409.
5. Mariotti, A., A. Landreau, and B. Simon, 1988, ^{15}N isotope biogeochemistry and natural denitrification process in groundwater: Application to the chalk aquifer of northern France. *Geochim. Cosmochim. Acta*, 52, 1869-1878.

사사 : 본 연구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3-5-1)과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과제명 : 농업환경오염 복원기술 개발)의 일부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